

마지 cxgr 슈프리모 상세 리뷰입니다.
 글로벌 마지 사이트 보고 너무 멋있어서 수입사 통해서 특별 주문한 제품입니다.
 국내 20대 한정으로 입고된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51,53으로만 출시했습니다.

일단 색을 보세요.
 영롱한 블루 색상입니다.
 매끈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풀카본 포크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즈 51제품을 조립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입니다.
 cx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헤드 튜브와 핸들이 높아서 좀 더 편하게 타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cx 즉 사이클 크로스는 속도를 내는 목적인다고 보면 맞습니다.
 둘러업고 뛰면서 자전거 타는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블바이크는 그보다 좀 더 편안하고 속도보다는 라이더의 주행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더 굵고 핸들 포지션이 높은 편입니다.



크로몰리만이 줄 수 있는 얇은 튜빙입니다.

클래식한 멋을 겸해서 주기 때문에 복장 갖춰 입기도 아주 무난합니다.

저지가 아닌 야상 같은 복장도 아주 잘 어울리겠네요.



짜잔!! 콜롬버스 튜빙입니다.

프레임 제조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공법이 달라서.. 어려우니 생략

무게는 줄이고 탄성은 높이고 강성은 유지한 탁월한 프레임입니다.

체감을 할 수 있냐고요?

믿고 타면 다든 느낌입니다.

사실.. 모든 자전거가 심리적인 이유로 체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아무든 그렇게 좋다고 하니 좋아 보이는.. 저 스티커를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레임 1개에 하나만 제공하고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떼어내면 중고 가격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이거.. 사진 찍는데 애먹었습니다.

드롭바인데 밑에 부분이 양옆으로 벌어진 게 보이시나요?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지죠?

보통 드롭바는 상체를 숙이고 밑에 부분을 잡아야 한다면

마지 cxgr 슈프리모 핸들바는 팔을 쪽 뻗어도 팔뚝에 핸들바가 닿지 않아서

기대고 가는 느낌으로 탈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블 바이크 핸들바가 보통 이러한데 아닌 제품도 몇 있습니다.

구매할 때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핸들바가 벌어져 보여서 단정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있는데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장거리 주행 시 기가 막힙니다.



시마노 105 롱 케이지 제품입니다.

롱 케이지는 더 넓은 스프라켓을 감당하는 녀석으로

그래블 cx... 요즘은 앤듀런스 로드 사이클에 많이 적용돼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할 거 없이 로고를 간지나게 박았습니다.
 마지는 최초 이태리에서 탄생한 브랜드고요. 미국으로 옮긴지 좀 된 제품입니다.
 클래식 바이크에서 좀 더 양념스러운 모델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51사이즈입니다.
 적정 신장까지 적어놓은 센스.. 160초반부터 170초반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 사이즈니 상대적으로 팔다리 짧은 동양인은 좀 더 작게 타셔도 됩니다.
 170까지로 되어 있는데 173까지도 적당합니다.

사이즈는 늘 어렵습니다...



praxis works 크랭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요?

크랭크는 보통 조립하는 공장(대만)에서 협약한 부품을 사용합니다.

풀 시마노 구성이나 풀 슬램 구성을 선호하지만

그런 제품이 보급된 거는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보통 크랭크, 체인, 앞드는 한 등급 다운, 뒷드는 좋은 거..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아무든 cxgr 슈프리모 크랭크 .. 예전에 소음 관련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문제는 비비 문제.. bb30에 고질적인 문제가 크랭크로 전이된 거라고 하네요.

크로몰리 프레임은 대부분 나사산이 있는 잉글리시 타입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할 걱정이 없습니다.



포크는 풀카본 포크이고요.

풀카본 포크가 아닌 카본 포크는 보통 헤드 튜브에 숨겨진 기둥, 스텔러 튜브에 알두미늄 인경우가 많습니다.

무게나 진동 잡아주는 부분에서 미세한(심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테이퍼트 방식입니다.

헤드 튜브 밀이랑 위가 다르고요. 핸들 조향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 또한 심리적인 수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를 두기 위해 개발자들의 정색 어린 설명을 이해하고 타면 정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10km 미터 달리는데 20미터 속도를 줄이는 정도가 큰 기술력이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뒤에서 바람이나 좀 불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움짤로 만들고 싶은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리모트 (버튼)을 누르면 안장이 저렇게 쑥 내려가고 다시 누르면 쑥 올라옵니다.

가변 시트 포스트!! 이거 놀라운 옵션입니다.

즉 정말로 산에서 타는 목적으로 라이딩 한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mtb 제품 풀샷에서 상급 라인업만 보통 달려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게 기본 옵션으로 적용됐다니 놀랍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다만~~ 인심이 짧은 분들은 최소 높이를 잘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몇 센티 때문에 시트 포스트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 masi

국내에 극성팬을 둔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크로몰리 입문급으로 출시하는 몇 안 되는 소중한 회사입니다.

자전거 시장이 많이 침체됐는데 그래도 딱 맞는 구성을 찾는 유저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크로몰리 프레임에 카본 포크, 그리고 가변 슴 포스트!

이 구성을 찾는 분들은 이 제품이 딱입니다.

타이어!!

700*40c 입니다.

이정도 굵기면 650c 가 대안일수 있는데

추후 부품 수급이 어려운걸 잘 알기에 과감하게 700c를 적용했습니다.

대신 32t의 작은 체인링으로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게 언덕을 오르실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애기를 좀 늦췄네요.

기계식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유압식이 좋긴 한데.. 가격을 200만 원 밑으로 책정하기 위한 본사의 지침 아니었나 해서 역으로 물어봤더니..

복동식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trp 사의 최상급이라고 자부하면서 제동력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시승을 해봤는데.. 많이 밀려요.. 이유는 새패드라서 그렇습니다.

타다면서 패드 코팅이 벗겨지면서 제동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유압식 브레이크 같진 않겠지만서도요.

업글하시면 최소 80~100선입니다. ππ

브레이크의 살짝 아쉬움을 뒤로하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레블바이크는 cx보다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목적으로 한다.

프레임이 크로몰리는 엄청난 내구성을 특징이고 산악지형, 투어로 최적화 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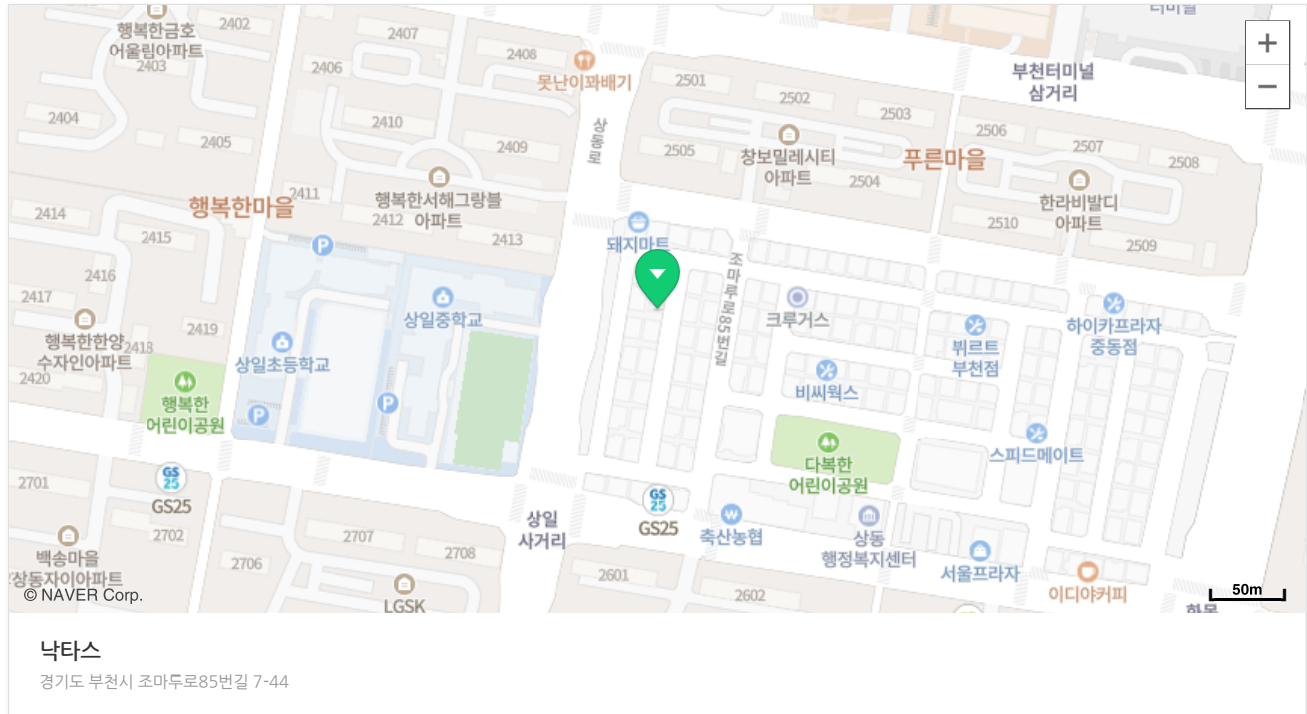
험로를 탈 때 안장이 내려가는 가변시프트는 명물입니다.

시커먼 자전거가 난무하는 현시대에 영롱한 파랑 빛을 내는 몇 안 되는 탁월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입니다.

가격은 198만 원

프레임도 스펙으로 보면 엄청 저렴한 가격입니다.

실물 보길 원하시면 이리로 오세요.



매주 일요일만 휴무입니다.